광양제철 평균 483만원 최고

■광주·전남 기업 월 급여 들여다보니

현대삼호중 477만원, 기아차 475만원 뒤이어

코스피업체 306만원, 코스닥보다 27% 많아

광주·전남지역 주요 기업 가운데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종별로는 대기업 계열 제조업체의 월급이 중소기업의 2배에 달했고, 상장사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업체가 코스닥시장 업체보다 27%가량 월급이 많았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1~9월까지 기업별로 지급된 급여를 바탕으로 직원 1인당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한 결과 포스코(광양제철소)가 483만원으로 지역 기업에서는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이 477만원, 기아차(광주공장) 475만원, 금호타이어 46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포스코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9.5년인데 반해, 현대삼호중공업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10.4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최고 연봉 직장은 현대삼호중공업이라고 할 수 있다.

월급이 300만원이 넘는 업체는 금호산업(363만원), 광주은행(355만원), 로케트전기(305만원)였다.

광주은행의 경우 지난해 남자(15년) 직원은 454만원, 여자(4.5년) 직원은 233만원이었으나 올해 들어 임원과 3급이상은 1월부터, 3급이하 전 직원은 9월부터 임금을 5% 자진 반납해 남자가 420만원, 여자가 183만원으로 줄어 들었다.

중소기업에서는 직원 145명의 로케트전기가 300만원을 넘겨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인터넷TV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셀런이 299만원, 보해양조 258만원, 광주신세계 254만원 등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들의 평균 월급은 306만원으로 코스닥업체보다 26.9%인 65만원이 더 많았다.

코스닥업체에선 손 세정제 생산업체로 신종플루 수혜를 보고 있는 순천의 파루가 277만원, 폴리플러스 243만원, 와이엔텍 233만원, 서산 213만원으로 이들 업체의 평균 월급은 241만원이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은행과 증권사 직원 1인당 월급이 각각 512만원과 648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2.8배와 3.5배에 달했다.

특히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임금 삭감 등 고통 분담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직원 임금은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위화감 논란을 낳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85만2천원, 비정규직의 임금은 120만2천원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 주요기업 월급 현황

(단위:만원)

기업명	직원수	근속연수	급여
포스코		19.5	483
현대삼호중공업		10.4	477
기아차		15.3	475
금호타이어	5,458	15.4	460
금호산업	4,115	9.2	363
광주은행	1,432	11.7	355
삼성광주전자	3,327	10	306
광주신세계	310	8.8	254
보해양조	518	10	258
로케트전기	145	11	305
부국철강	76	8.7	207
셀런	175	3	299
와이엔텍	170	7	233
서산	126	8.5	213
파루	101	2.4	277
폴리플러스	105	9	243

첩보원이 타고 온 기아차 'K7'

기아차는 19일 서울 강남, 여의도, 경기 분당 등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인기 첩보 드라마를 테마로 한 '테마 로드쇼'를 열고 준대형 신차 K7을 공개했다. 〈기아차 제공〉

내년 자동차보험료 부담 커진다

손보協, 무사고 할인 기간 축소·보험료 인상 등 추진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10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정비수가 인상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 등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손해보험사는 내년 1월부터 운전자가 11년 이상은 사고를 내지 않아야 자동차보험료를 60% 깎아줄 계획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매년 보험료를 5~10% 깎아주고 있으며 통상 10년 이상 사고 경력이 없어야 60% 할인해주고 있다. 내년에 연간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최고 할인율에 도달하는 기간을 늘린다. 2011년부터는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으려면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야 한다.

이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2009 회계연도 첫 달인 지난 4월 평균 70.9%에서 10월 75.6%로 급등하고 누적 손해율이 72.8%를 기록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상점검 받으세요"

아우디코리아 겨울맞이 캠페인

아우디 코리아(대표 트레버 힐)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광주를 비롯, 전국 아우디 고객을 대상으로 '2009 아우디 겨울맞이 무상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냉각수와 타이어, 제동장치, 배터리 등 30여 가지 겨울철 필수 점검 대상으로, 이 기간 중 광주 등 전국 아우디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아울러 최대 20%에 달하는 정비부품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2014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300개 구축

구입·설치비 50% 정부 지원

정부가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밝힌 전기자동차 인프라가 조기 구축된다.

1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기자동차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300개의 급속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첫해인 2011년에는 시범도시에 우선 50개 충전소를 설치하고, 2012년 50개, 2013년 50개, 2014년 150개 등으로 점차 숫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충전기는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구청 등 공공기관,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 초기 단계인 2013년까지는 충전기 구입 및 설치 비용의 5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충전기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손익이 맞지 않는 만큼, 정부 지원 요청이 많았다"며 "현재 수준으로는 충전기 한 대 가격이 5천만 원, 설치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 전력저장장치 등 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일몰형 R&D(기술.개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몰연도는 전기차의 경우 201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은 2013년, 전력저장장치는 2015년을 검토중이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자동차 엔진 '3년 무상수리' 의무화

내년부터 자동차를 산 뒤 3년 이내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행거리가 6만km를 넘지 않았을 때 무상수리를 해야 한다.

엔진을 제외한 다른 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km 이내 무상수리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무상수리가 권고사항이었지만, 이번에 강제규정으로 법제화됐다.

/연합뉴스